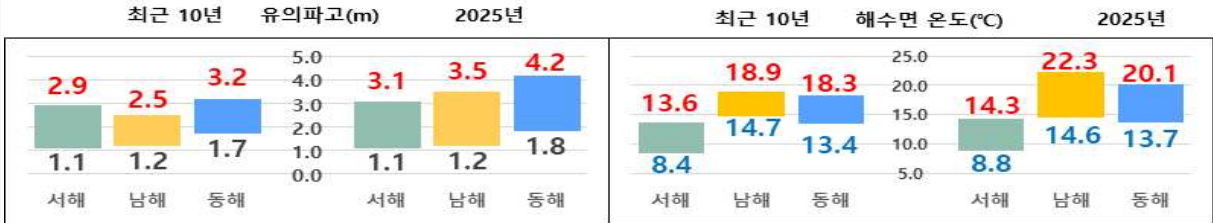


2026년 1월 해양 기상·기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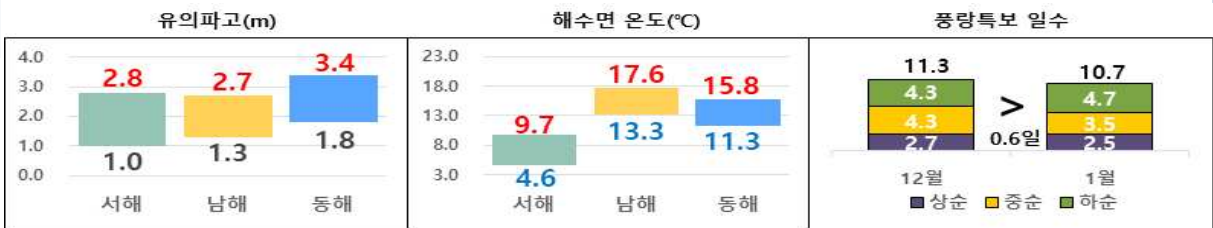
발표일: 2026년 1월 2일

해양 기상·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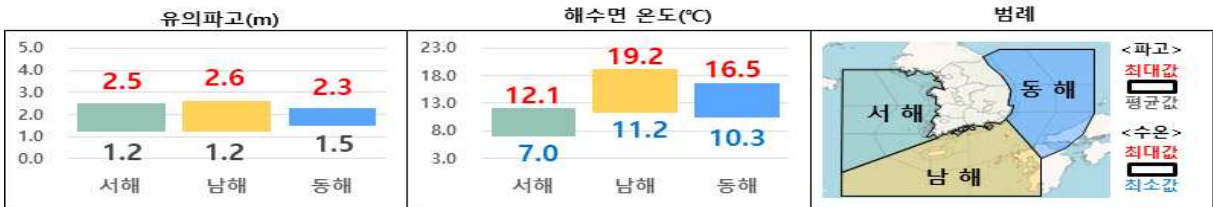
○ 12월 해양 기상 분석(최근 10년('15~'24년) 및 2025년)



○ 과거 1월 해양 기상 특성(최근 10년('16~'25년))



○ '26년 1월 유의파고 및 해수면 온도 예측정보



조석

○ 조석정보(고극조위, '26년 1월)

- 인천: 5일(887cm) / 완도: 4일(394cm) / 포항: 4일, 5일, 6일(29cm)

안전

○ 해상조난사고 현황(최근 5년간('21~'25년))

- 전체 20,139척의 선박사고와 344명의 인명피해 중 1월에 1,212척(6.0%), 22명(6.0%) 발생

○ 해양사고 현황(최근 5년간('20~'24년))

- 최근 5년간 1월 누적 해양사고는 총 976건 발생, 1월은 연중 화재·폭발사고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로, 화재사고 및 전복사고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 제고 필요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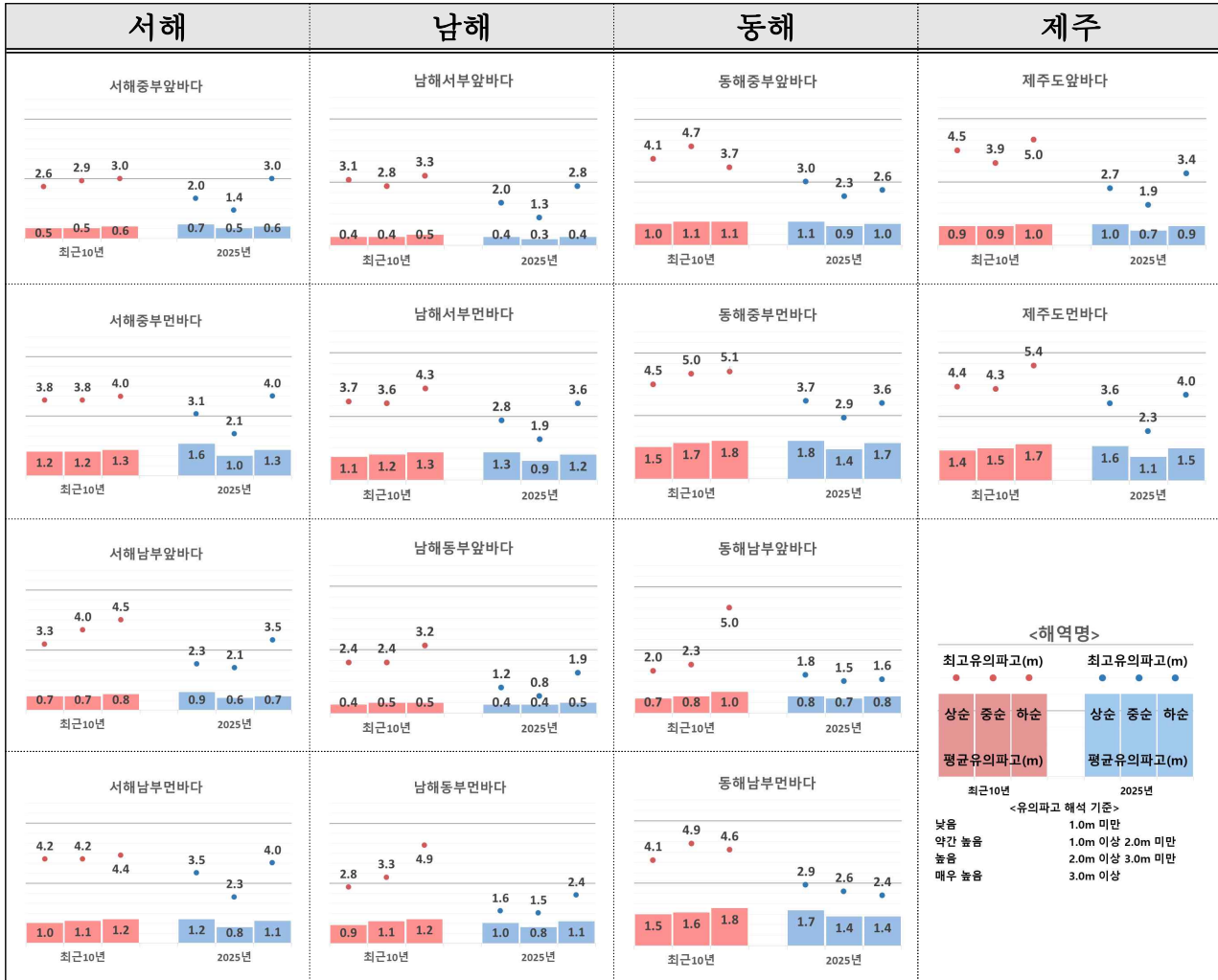
○ 1월 어황 전망

- 고등어, 멸치, 갈치는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
- 전갱이, 살오징어, 참조기는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삼치는 평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협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 기상 · 기후정보

■ 최근 10년간('16~'25년) 및 지난해('25년) 1월 유의파고(평균, 최고)



< 최근 10년간('16~'25년) 및 지난해('25년) 1월 순별 유의파고(평균, 최고) >

해역	면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덕적도, 천수만, 안면도
서해남부	칠발도, 맹골수도, 부안	진도, 군산, 영광, 신안, 대치마도, 비안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파고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오륙도, 다대포,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동해중부	동해, 독도,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맹방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최근 10년간('16~'25년) 1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앞바다	먼바다
서 해	0.6m (전월보다 0.1m 낮음)	1.2m (전월과 비슷)
남 해	0.5m (전월보다 0.1m 높음)	1.2m (전월보다 0.1m 높음)
동 해	1.0m (전월보다 0.1m 높음)	1.7m (전월보다 0.1m 높음)
제주도	0.9m (전월과 비슷)	1.5m (전월과 비슷)

<순별 평균 유의파고>

(상순) 동해중부앞바다, 서해먼바다, 남해서부먼바다, 동해먼바다, 제주도먼바다에서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은 낮았음

(중순) 동해중부앞바다, 서해먼바다, 남해먼바다, 동해먼바다, 제주도먼바다에서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은 낮았음

(하순) 동해앞바다, 제주도앞바다, 서해먼바다, 남해먼바다, 동해먼바다, 제주도 먼바다에서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은 낮았음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6	0.6	0.7	1.1	1.2	1.3
남 해	0.4	0.5	0.5	1.0	1.2	1.3
동 해	0.9	1.0	1.1	1.5	1.7	1.8
제주도	0.9	0.9	1.0	1.4	1.5	1.7

※ 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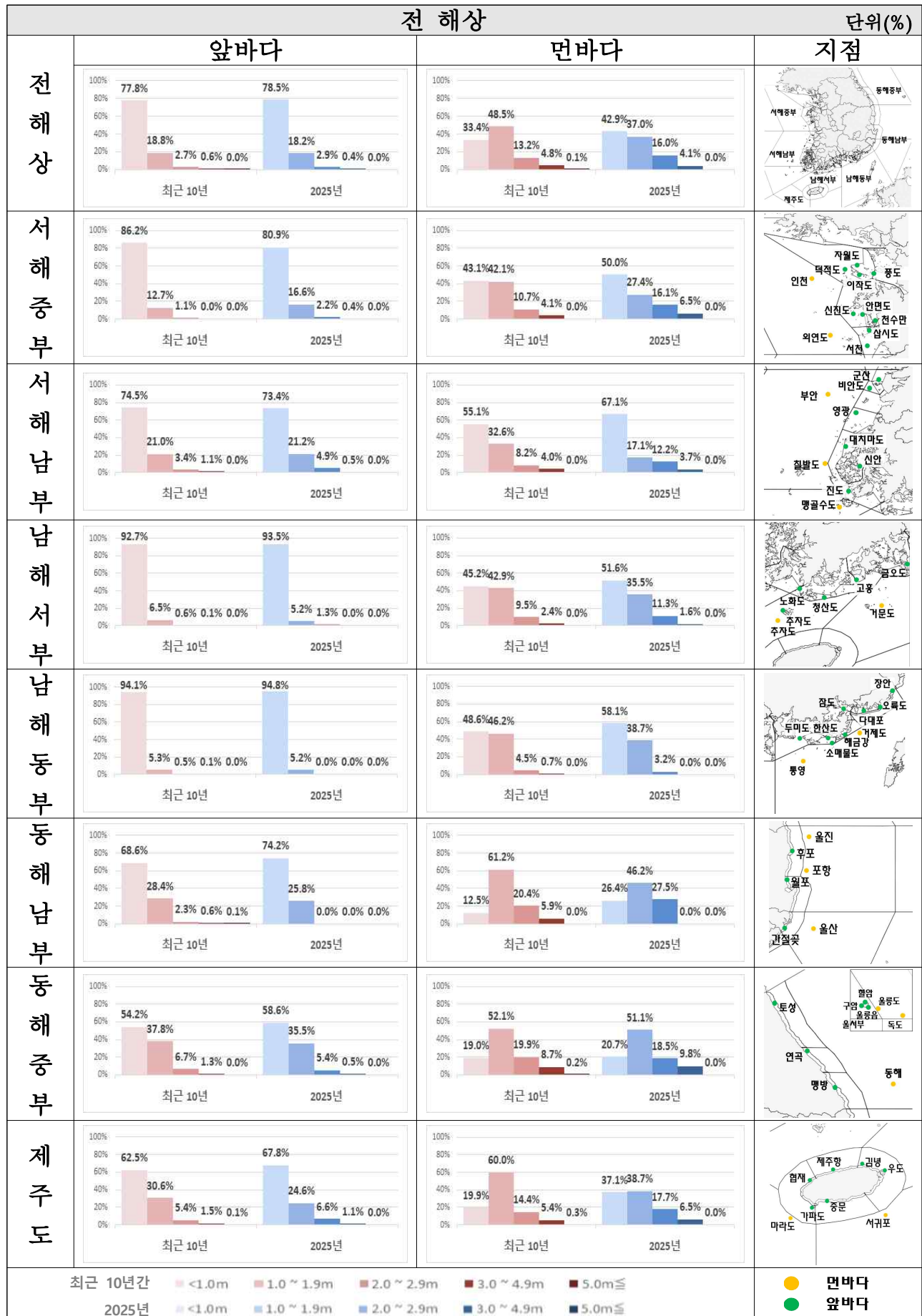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16~'25년) 1월 해역별 최고 유의파고

- 서 해: 앞바다 4.5m / 먼바다 4.4m
- 남 해: 앞바다 3.3m / 먼바다 4.9m
- 동 해: 앞바다 5.0m / 먼바다 5.1m
- 제주도: 앞바다 5.0m / 먼바다 5.4m

○ 관측 이래 1월 지점별 유의파고(일 평균, 일 최고) 극값 순위(단위:m)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 해	영광	'16.1.24.	4.5 (5.4)	부안	'23.1.24.	4.4 (5.3)	칠발도	'23.1.24.	4.2 (5.1)
남 해	거제도	'20.1.27.	4.9 (7.0)	추자도	'16.1.24.	4.3 (5.3)	거제도	'20.1.28.	3.8 (5.6)
동 해	울릉도	'21.1.29.	5.1 (6.4)	울릉도	'16.1.20.	5.0 (7.1)	간절곶	'20.1.27.	5.0 (6.7)
제주도	서귀포	'20.1.27.	5.2 (6.6)	마라도	'16.1.24.	5.2 (7.2)	제주항	'16.1.24.	5.0 (6.8)

■ 최근 10년간('16~'25년) 및 지난해('25년) 1월 유의파고 분포



○ 최근 10년간('16~'25년) 및 지난해('25년) 1월 전 해상 유의파고 분포

- 최근 10년 (앞바다) 1m미만 77.8%, 2m이상 3.3%
(먼바다) 1m미만 33.4%, 2m이상 18.1%
- 지 난 해 (앞바다) 1m미만 78.5%, 2m이상 3.3%
(먼바다) 1m미만 42.9%, 2m이상 20.1%

○ 최근 10년간('16~'25년) 1월 해역별 유의파고 분포

- 서 해: (앞바다) 1m미만 81.7%, 2m이상 2.4% (먼바다) 1m미만 50.2%, 2m이상 13.3%
- 남 해: (앞바다) 1m미만 93.6%, 2m이상 0.7% (먼바다) 1m미만 46.9%, 2m이상 8.5%
- 동 해: (앞바다) 1m미만 59.0%, 2m이상 6.3% (먼바다) 1m미만 15.7%, 2m이상 27.5%
- 제주도: (앞바다) 1m미만 62.5%, 2m이상 7.0% (먼바다) 1m미만 19.9%, 2m이상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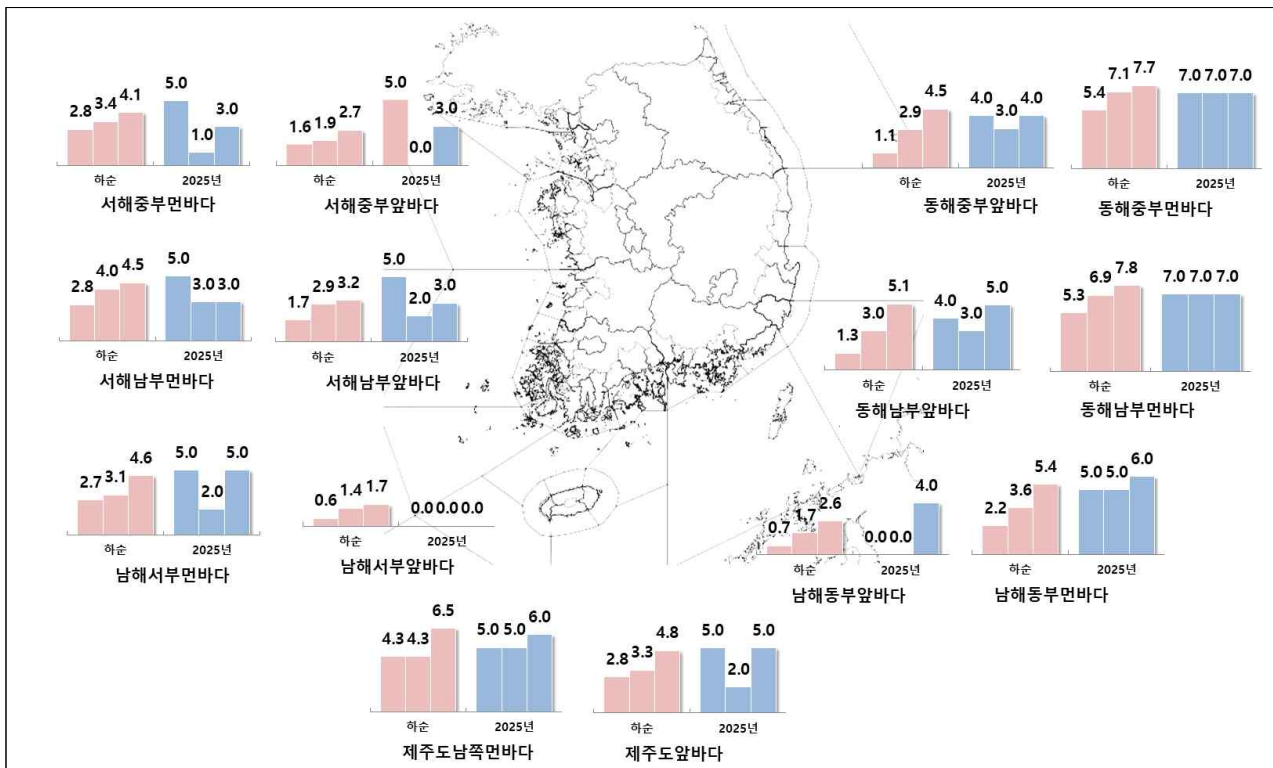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16~'25년) 및 지난해('25년) 1월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

- 최근 10년: (1m미만) 남해동부앞바다(94.1%) / (2.0m이상) 동해중부먼바다(28.8%)
- 지 난 해 : (1m미만) 동해남부앞바다(94.8%) / (2.0m이상) 제주도먼바다(28.3%)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덕적도, 천수만, 안면도
서해남부	칠발도, 맹골수도, 부안	진도, 군산, 영광, 신안, 대치마도 비안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파고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오륙도, 다대포,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동해중부	동해, 독도,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맹방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최근 10년간('16~'25년) 및 지난해('25년) 1월 풍랑특보일 수



<최근 10년간('16~'25년) 및 '25년 1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 1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

- 최근 10년: 10.7일, 전월(11.3일)보다 0.6일 적음
- 지 난 해: 11.7일, 전월(13.1일)보다 1.4일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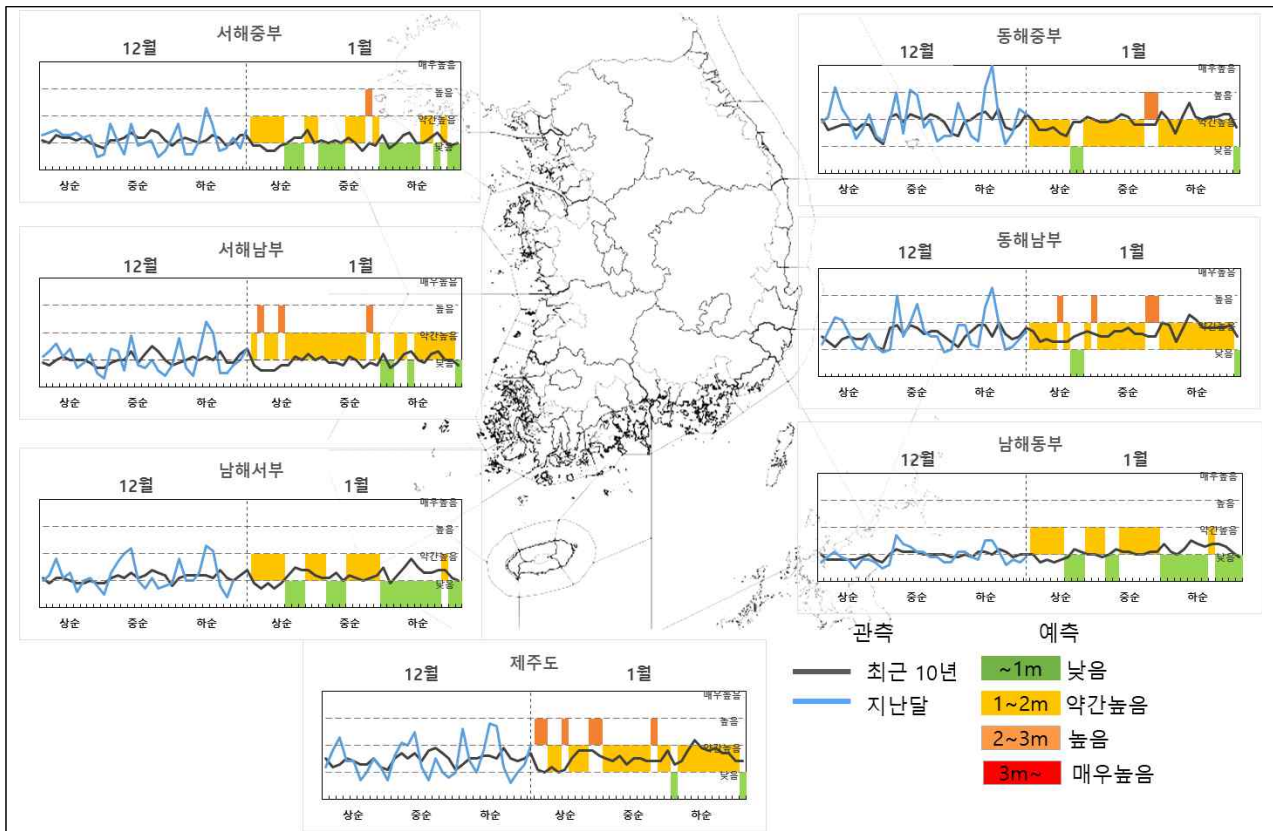
○ 1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10년: 상순 2.5일 / 중순 3.5일 / 하순 4.7일
- 지 난 해: 상순 4.4일 / 중순 2.9일 / 하순 4.4일

○ 1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 최근 10년: 동해중부먼바다(20.2일) / 남해서부앞바다(3.7일)
- 지 난 해: 동해남부먼바다·동해중부먼바다(21.0일) / 남해서부앞바다(0.0일)

유의파고 관측 및 예측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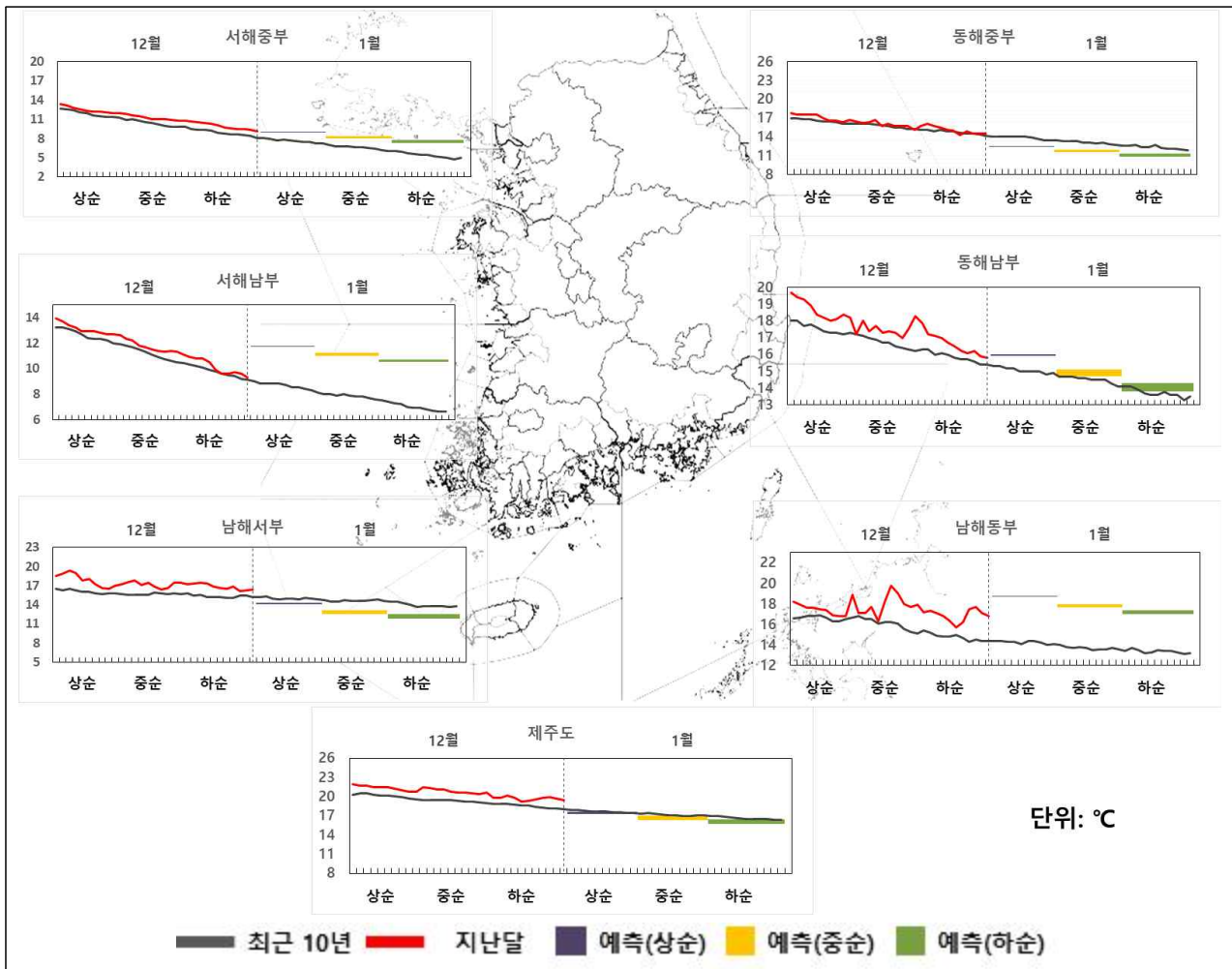
< 유의파고 최근 10년('16~'25년) 및 '25년 12월(12.1.~12.31.) 관측과 1월 예측 >

- ✓ 유의파고는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에서 관측한 일 평균 유의파고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16~'25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5년 12월(1일~31일)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파고 예측은 수치모델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범위로 표출함
 - ※ 파고 구간값: **낮음**(1m 미만), **약간높음**(1~2m), **높음**(2~3m), **매우높음**(3m 이상)
- ✓ 파고 예측정보는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역	해양기상부이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인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부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지점

■ 해수면 온도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해수면 온도 최근 10년('16~'25년) 및 '25년 12월(12.1.~12.31.) 관측과 1월 예측 >

- ✓ 해수면 온도는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한 정시 해수면 온도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최근 '16~'25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5년 12월(1일~31일)의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해수면 온도 예측은 전지구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역	해양기상부이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인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부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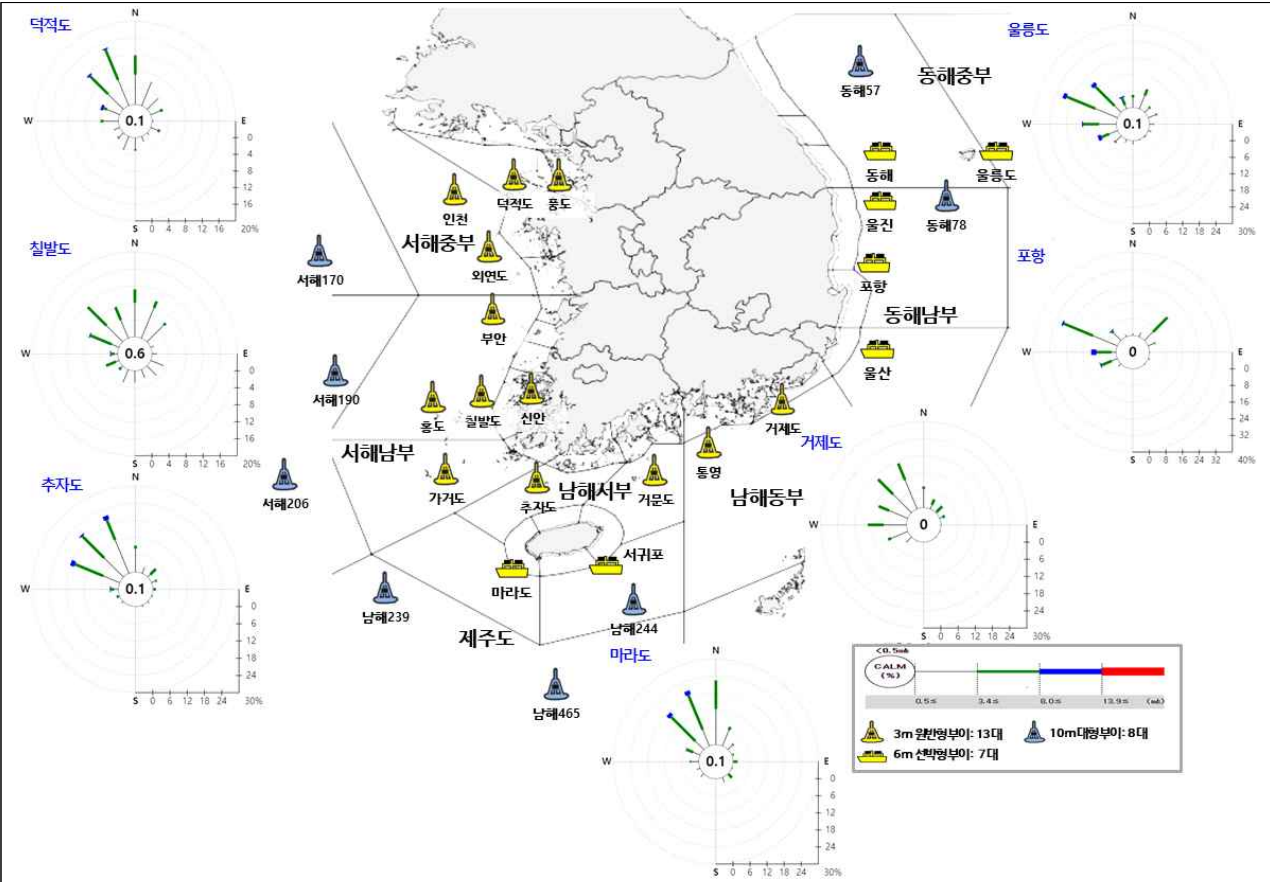
○ 지난달 ('25년 12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특성

해역	12월 해수면 온도(℃) (최근 10년 대비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11.0~14.3 (0.6)	9.9~12.3 (0.9)	8.5~11.2 (1)
서해남부	12.3~14.1 (0.5)	10.7~13.1 (0.6)	8.4~12.0 (0.4)
동해중부	16.2~18.6 (0.5)	15.1~17.3 (0.2)	13.7~16.9 (0.3)
동해남부	17.2~20.1 (1.1)	16.0~19.6 (0.8)	14.9~19.2 (0.8)
남해서부	15.7~20.1 (1.8)	15.9~18.6 (1.5)	15.0~18.0 (1.5)
남해동부	16.3~19.0 (0.9)	15.7~20.5 (1.9)	14.6~19.0 (2.1)
제주도남쪽	20.7~22.3 (1.2)	20.4~21.5 (1.6)	19.2~20.1 (1.2)

○ 최근 10년간('16~'25년) 1월 해수면 온도 평균 및 '26년 1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예측

해역(관측지점)		(과거) 최근 10년간 1월 해수면 온도 평균	(예측) '26년 1월 해수면 온도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인천	2.1~10.9	7~9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부안	3.2~11.3	10~12
동해중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9.2~18.2	10~13
동해남부	거제도, 통영	10.2~17.5	13~17
남해서부	동해, 울릉도	11.9~19.8	11~15
남해동부	포항, 울산, 울진	9.7~17.3	17~19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15.0~19.2	15~18

■ 지난해('25년)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특성



< '25년 1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 지난해('25년) 1월 각 해역의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3.3	3.4~7.9	8.0~13.8	13.9≤	
서해중부	NNW	0.2	17.6	53.5	26.7	1.8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170, 풍도
서해남부	WNW	0.9	18.0	48.1	30.8	2.2	칠발도, 신안, 부안, 서해206, 가거도, 홍도, 서해190
남해서부	WNW	0.1	14.0	44.4	38.6	3.0	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	WNW	0.1	15.7	49.4	34.5	0.5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WNW	0.4	15.5	42.3	36.1	5.8	울릉도, 동해
동해남부	NW	0.1	14.0	45.7	37.1	3.3	포항, 울산, 울진, 동해78
제주도	NNW	0.4	12.6	40.4	42.2	4.3	마라도, 서귀포, 남해239, 남해465, 남해244
전 해 상		0.3	15.3	46.2	35.1	3.0	

- 주풍계: 동해남부는 북서풍계열, 서해중부와 제주도는 북풍계열, 서해남부, 남해상, 동해중부는 서풍계열의 바람이 우세
- 전 해상 풍속: 3.4m/s 미만 15.6% / 3.4 ~ 7.9m/s 46.2% / 8.0m/s 이상 38.1%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3.4m/s 미만 - 서해남부(18.9%) / 8.0m/s 이상 - 제주도(46.5%)

☞ 지난해('25년) 1월 해양기상부이 지점별 해상풍은 부록 1. 참고

해양기상정보포털 UI/UX가 개선되었습니다

□ 해양기상·기후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UX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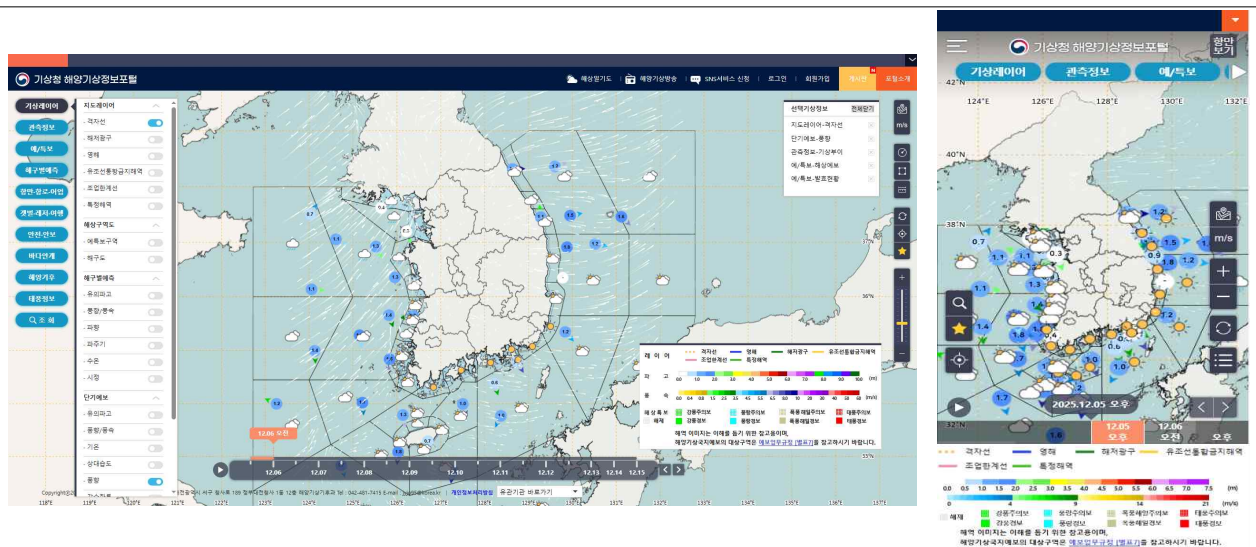
○ 대상: 해양기상정보포털(marine.kma.go.kr)

○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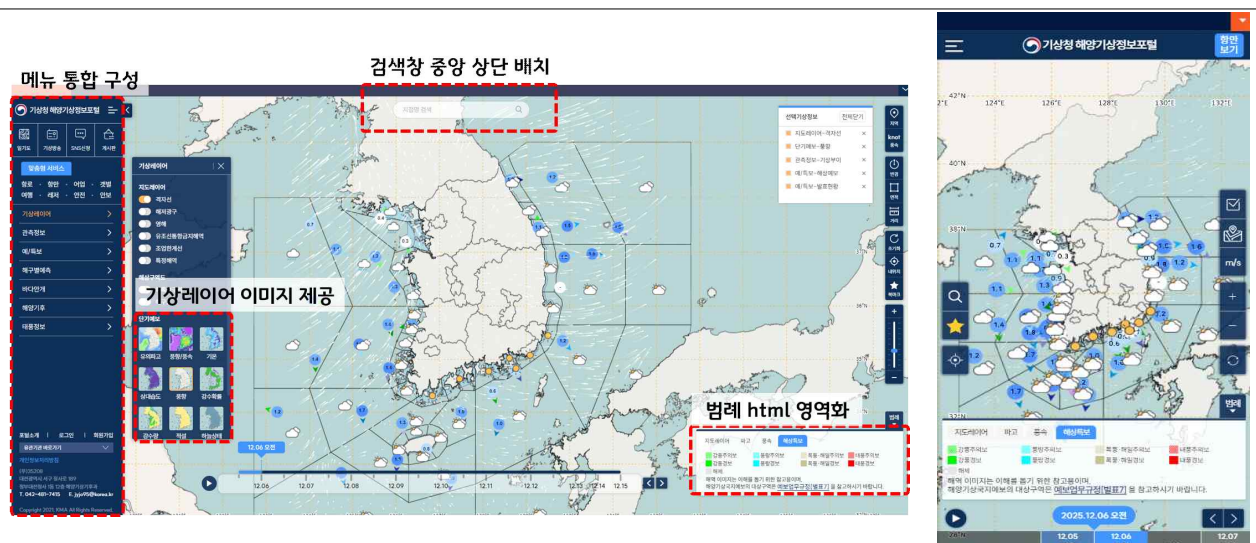
- 메인화면: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적용, '검색창' 중앙 상단 배치
- 메뉴 스타일: 메뉴 통합 구성, 기상레이어 이미지(미리보기) 제공
- 맞춤형 정보: 맞춤형 서비스 메뉴 상단 배치, 툴팁 스타일 개선
- 범례: html 영역화로 범례 스타일 통일, ON/OFF 기능 제공

※ 모바일 웹은 PC 웹을 바탕으로 디자인 적용

개선 전



개선 후



해양조석정보

제 공: 국립해양조사원

○ 1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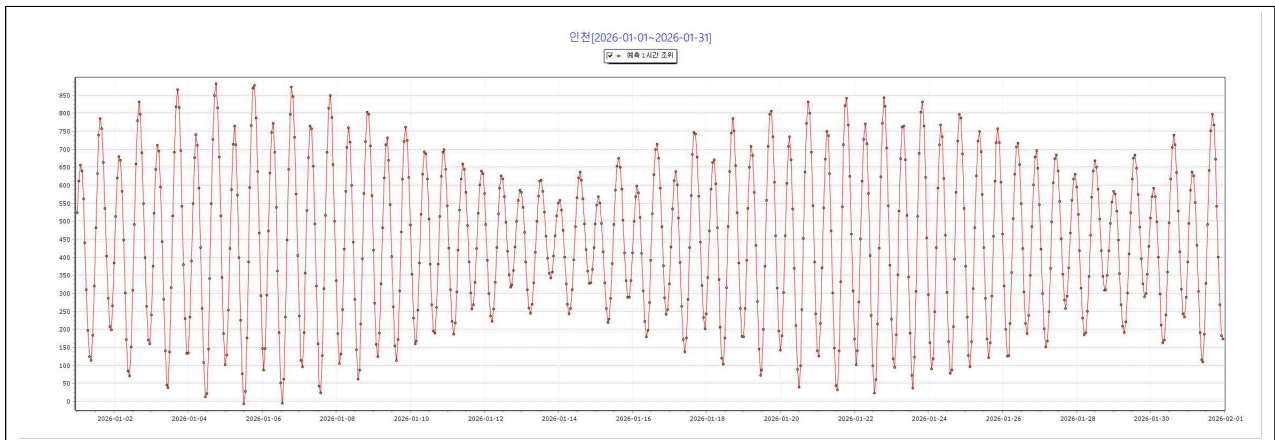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1월 5일에 887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1월 4일에 394cm, 동해안의 포항은 1월 4일, 5일, 6일에 29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1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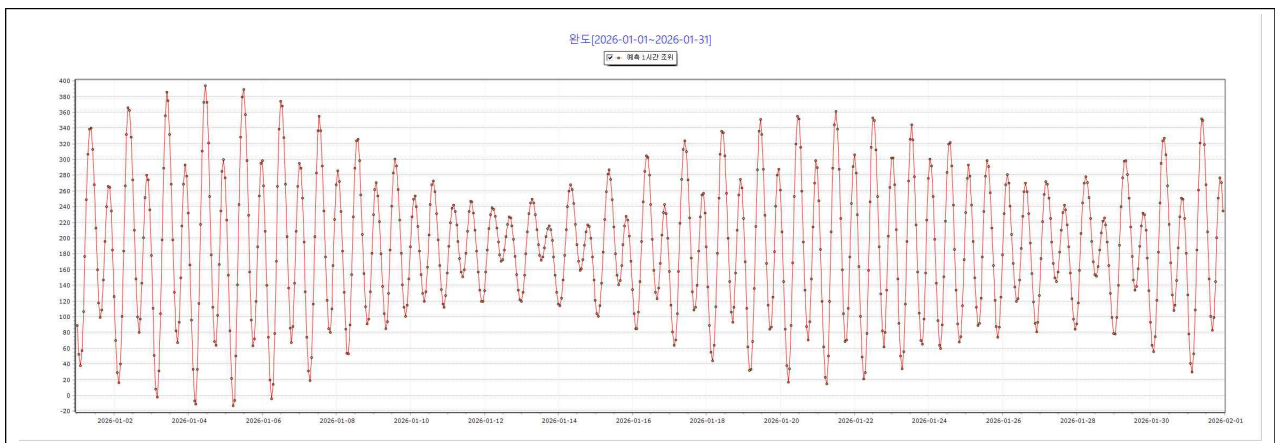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망, 1.3~6.)		대조기(삭, 1.19~22.)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서해안	인 천	1.05 18:34	887	1.22 19:15	847
	안 흥	1.04 16:47	673	1.22 18:16	637
	군 산	1.05 16:47	693	1.21 17:01 1.22 17:34	655
	목 포	1.04 15:09 1.05 15:56	480	1.21 16:09	433
남해안	제 주	1.04 11:39	287	1.21 12:34	259
	완 도	1.04 10:58	394	1.21 11:55	361
	마 산	1.5 10:28	199	1.20 10:10 1.21 10:41	175
	부 산	1.05 09:54	126	1.21 10:08	115
동해안	포 항	1.04 02:11 1.05 03:10 1.06 04:10	29	1.20 03:32 1.21 04:15	21
	속 초	1.04 02:25 1.05 03:17	30	1.20 03:16	28
	울릉도	1.04 01:33 1.05 02:25	25	1.19 01:45 1.20 02:31	18

☞ 2026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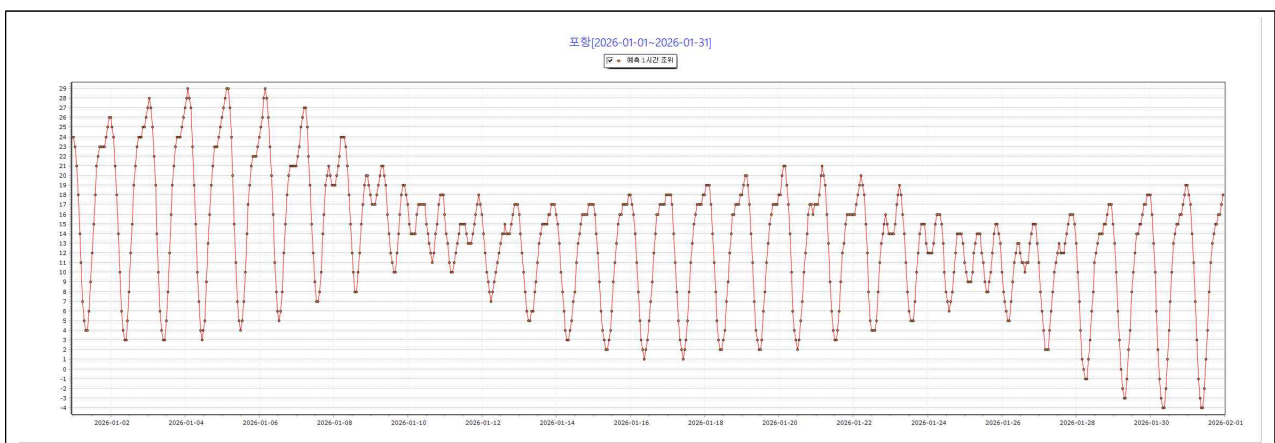
○ 1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6년 1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6년 1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6년 1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양안전정보

해상조난사고 현황

제공: 해양경찰청

○ 해상조난사고 현황(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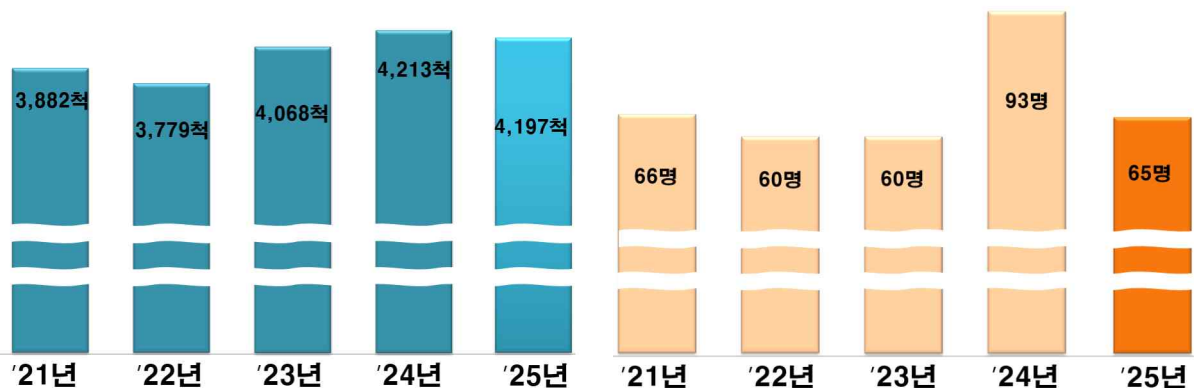
- (총괄) 최근 5년간 20,139척의 선박사고와 3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1월에는 1,212척(6%), 22명(6%)이 발생하였음
- (선종별) 어선(낚시) 63%(어선 673·낚시 94척) > 레저선박 14%(165척) > 화물선(유조선 포함) 7%(88척) > 예부선 7%(80척) 등 순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 70%(851척)*를 제외, 6대사고 중 충돌 33%(119척) > 침수 30%(105척) > 좌초 13%(48척) > 화재 17%(61척) 등 순
-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 손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방향상실, 작업 중 인명사상 등
- (원인별)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안전부주의 41%(496척) > 정비불량 35%(428척) > 관리소홀 13%(161척) > 기상악화 2%(29척) 등 순 발생

○ 해상조난사고 통계('21년 ~ '25년)

* 25년 통계는 잠정치

- 최근 5년간 20,139척(연평균 4,028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인원 109,710명 중 344명(사망 246명, 실종 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구분	발생		구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망	실종
계	20,139	109,710	19,712	109,348	344	246	98
2025년	4,197	22,998	4,119	22,915	65	48	17
2024년	4,213	23,840	4,115	23,747	93	62	31
2023년	4,068	21,666	3,990	21,606	60	47	13
2022년	3,779	21,032	3,709	20,972	60	46	14
2021년	3,882	20,174	3,779	20,108	66	43	23
평균	3,938	22,173	3,861	22,104	69	4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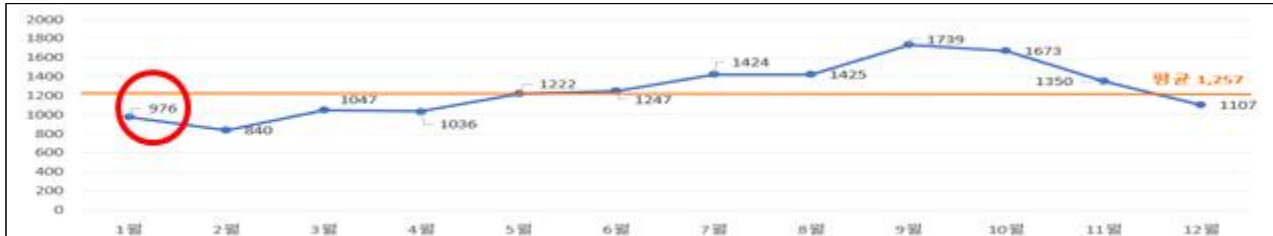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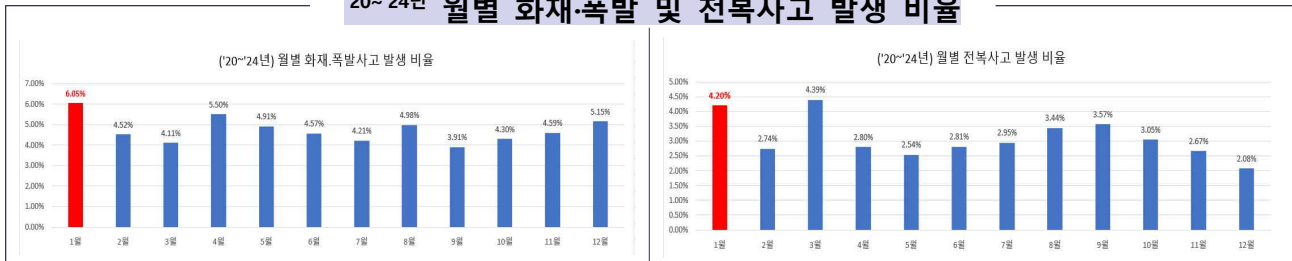
□ 최근 5년간('20~'24) 1월 해양사고 현황

○ [현황] 최근 5년간 1월 누적 해양사고는 총 976건 발생



- (사고유형별) 주요사고*는 충돌 87건(8.9%), 안전사고 62건(6.4%), 화재·폭발 59건(6.1%), 전복 41건(4.2%), 침몰 20건(2.1%) 순 발생
 * 주요 해양사고는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및 안전사고를 의미
 ** 단순 해양사고는 기관손상 250건(25.6%), 부유물감김 156건(16.0%), 침수 80건(8.2%), 좌초 46건(4.7%) 등 순
- 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유형별 발생 비율은 충돌사고가 가장 높으나, 월별 해양사고 발생 건수 대비 유형별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화재·폭발사고(6.05%)와 전복사고(4.20%)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20~'24년 월별 화재·폭발 및 전복사고 발생 비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근 5년 월별 해양사고 발생 누적건수 (A)	976건	840건	1,047건	1,036건	1,222건	1,247건	1,424건	1,425건	1,739건	1,673건	1,350건	1,107건
최근 5년 화재·폭발사고 누적건수 (B)	59건	38건	43건	57건	60건	57건	60건	71건	68건	72건	62건	57건
사고발생률 (B/A)	6.05%	4.52%	4.11%	5.50%	4.91%	4.57%	4.21%	4.98%	3.91%	4.30%	4.59%	5.1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근 5년 월별 해양사고 발생 누적건수 (A)	976건	840건	1,047건	1,036건	1,222건	1,247건	1,424건	1,425건	1,739건	1,673건	1,350건	1,107건
최근 5년 전복사고 누적건수 (B)	41건	23건	46건	29건	31건	35건	42건	49건	62건	51건	36건	23건
사고발생률 (B/A)	4.20%	2.74%	4.39%	2.80%	2.54%	2.81%	2.95%	3.44%	3.57%	3.05%	2.67%	2.08%

□ 1월 주요사고 특성

- 1월은 연중 화재·폭발사고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이자 유의파고가 높은 시기로, **화재사고*** 및 **전복사고****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 제고 필요

* (화재·폭발사고) 최근 5년간 1월의 화재·폭발사고 발생 비율은 6.05%로 연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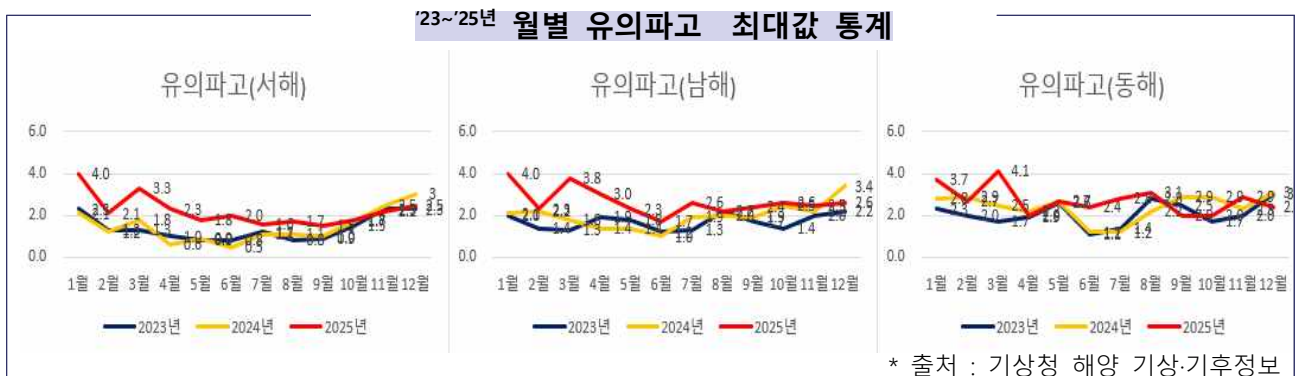
** (전복사고) 1월 전복사고 발생 비율이 4.20%로 연중 최고 수준은 아니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해양사고 예방대책

- (화재사고 예방) 전기설비 점검 및 화기취급 주의, 기관실 순찰 강화·소화설비 집중 점검, 선내 화재 대응훈련 실시를 통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전복사고 예방) 복원성 확보* 및 해상기상정보** 수시 확인 등
 - '25년 1월 전 해상에서 유의파고가 높게 관측됨에 따라, 전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 (복원성 확보) 상갑판 상 어구 및 적재물을 고박하여 이동방지, 아창 등 화물 균형적재를 통해 과도한 트림 및 경사 발생 예방

** (해상기상정보) 출항 전 및 항해 중 해상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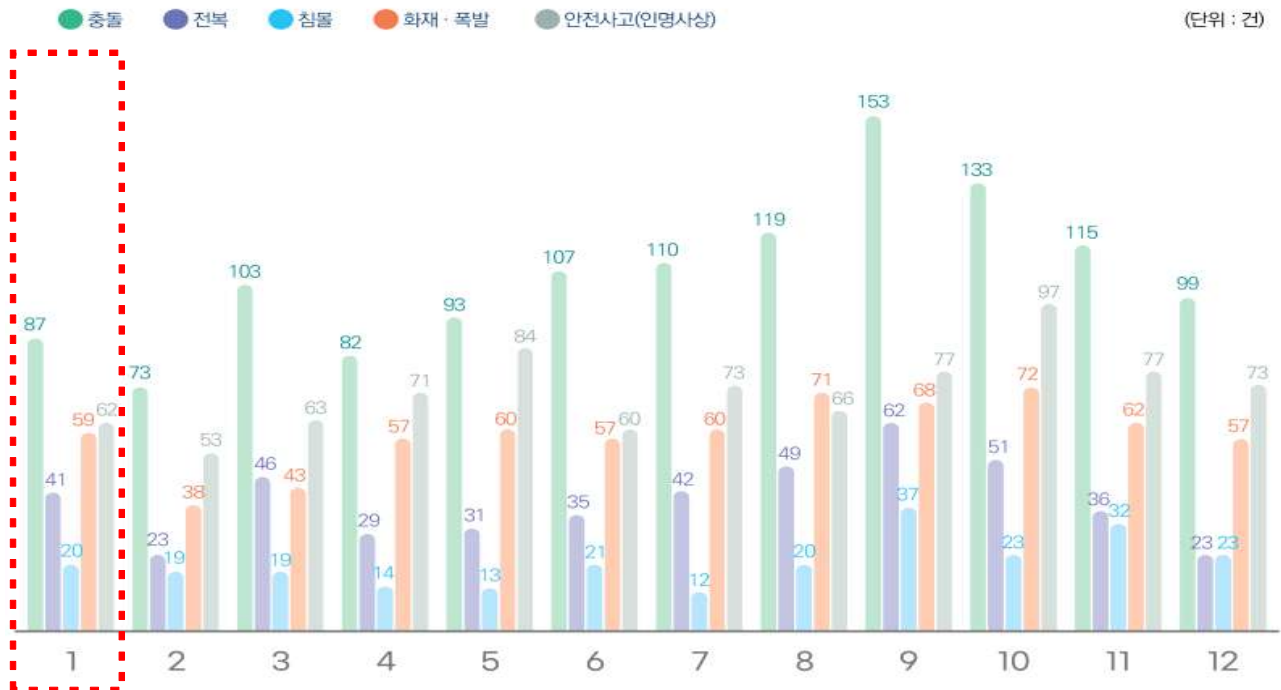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2023	2.3	2.0	2.3	1.3	1.4	2.0	1.3	1.3	1.7	1.0	1.9	1.9	0.8	1.8	2.6	0.8	1.2	1.1
2024	2.1	2.1	2.8	1.2	2.2	2.9	1.8	1.8	2.5	0.6	1.4	2.2	0.9	1.4	2.7	0.5	1.0	1.2
2025	4.0	4.0	3.7	3.6	3.8	3.5	3.3	3.8	4.1	2.3	3.0	2.0	1.8	2.3	2.7	2.0	1.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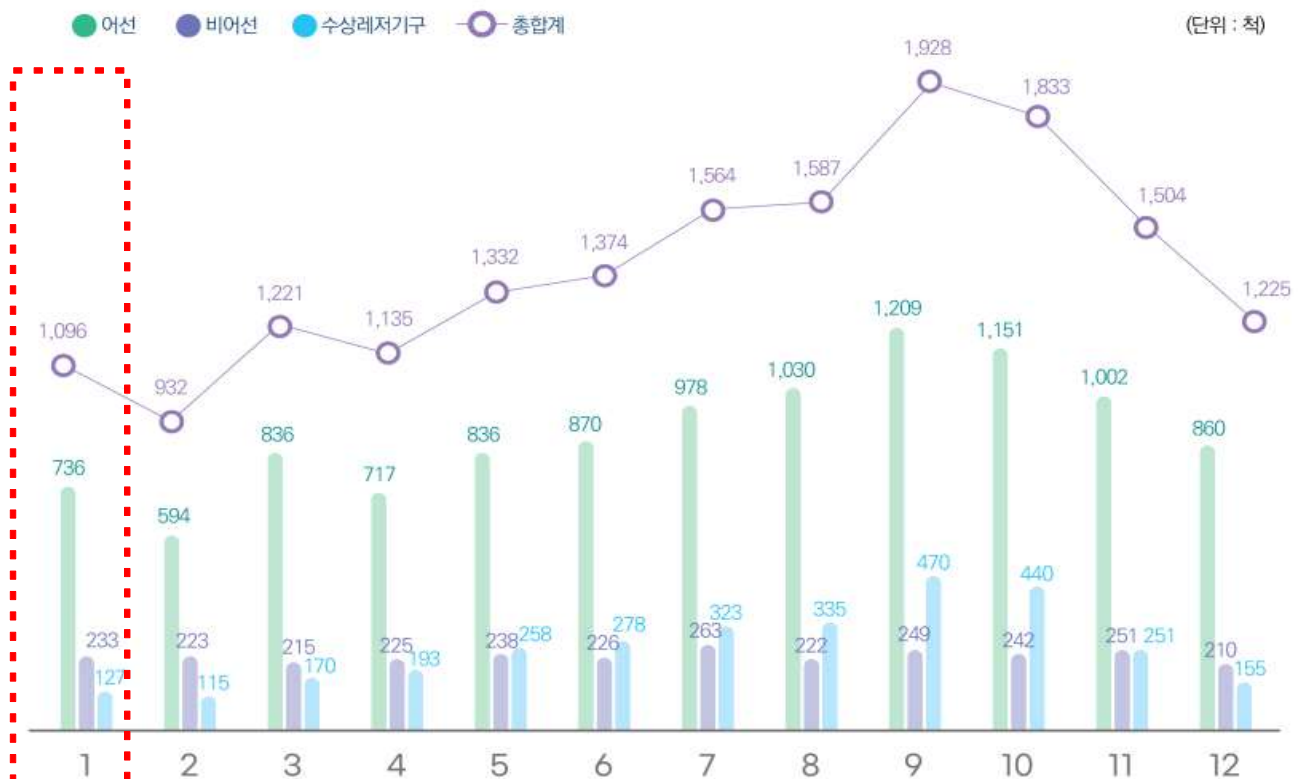
연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2023	1.2	1.3	1.4	0.8	2.2	2.8	0.9	1.7	2.5	1.5	1.4	1.7	2.3	2.0	2.0	2.3	2.2	3.0
2024	1.1	1.9	1.2	1.1	2.0	2.2	1.0	1.9	2.9	1.7	2.5	2.9	2.5	2.2	2.3	3.0	3.4	3.1
2025	1.6	2.6	2.8	1.7	2.2	3.1	1.5	2.4	2.0	2.7	3.0	3.2	2.6	2.6	3.3	2.5	2.6	2.4

□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 '24년 중 월별 누계)

○ 주요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20~'24년)



○ 선박종류별 해양사고 현황('20~'24년)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물과학원

□ 1월 어황정보

○ 지난달(12월)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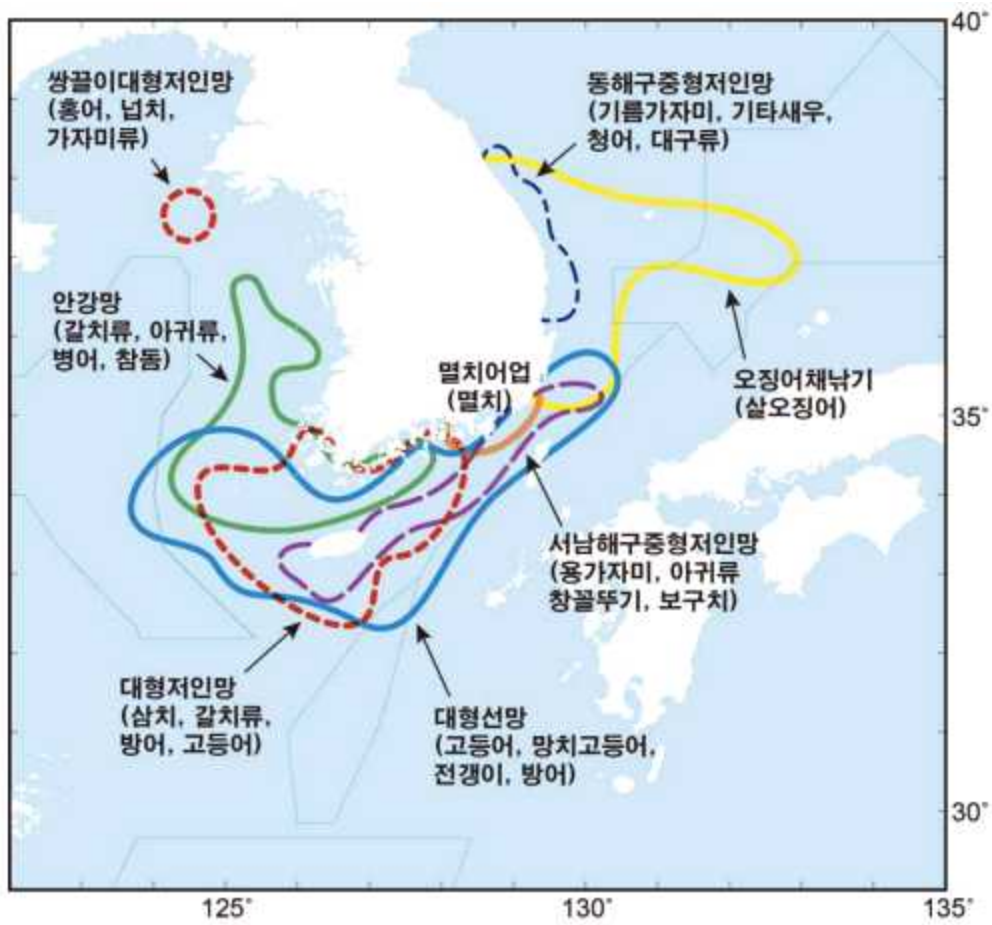
- 12월(기간: ' 25.11.23.~' 25.12.20.)의 주요 어종별 어획량을 살펴보면, 고등어, 삼치는 평년(최근 5년 평균) 대비 증가하였고, 전갱이, 살오징어, 멸치, 갈치, 참조기는 평년 대비 감소하였다.

○ 1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 남해와 서해 남부 해역까지 고등어를 중심으로 망치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년보다 양호하고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징어채낚기어업: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 동해 중부와 남해 동부 해역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나, 규모는 제한적이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멸치권현망어업: 거제도와 남해군 앞바다를 중심으로 조업이 이어지겠으며, 어황은 전·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근해안강망어업: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해역에서 갈치, 아귀류, 병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하나,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인망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남해 서부 해역에서 삼치, 갈치, 방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남해 서부에서 제주도 남부 먼바다에 걸쳐 보구치, 갑오징어류, 달고기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어지겠다.
 - 서남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동해 남부에서 남해 동부와 제주도 주변 해역에 걸쳐 용가자미, 아귀류, 창꼴뚜기, 보구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다.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해역에서 기름가자미, 새우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 저인망어업의 어황은 전·평년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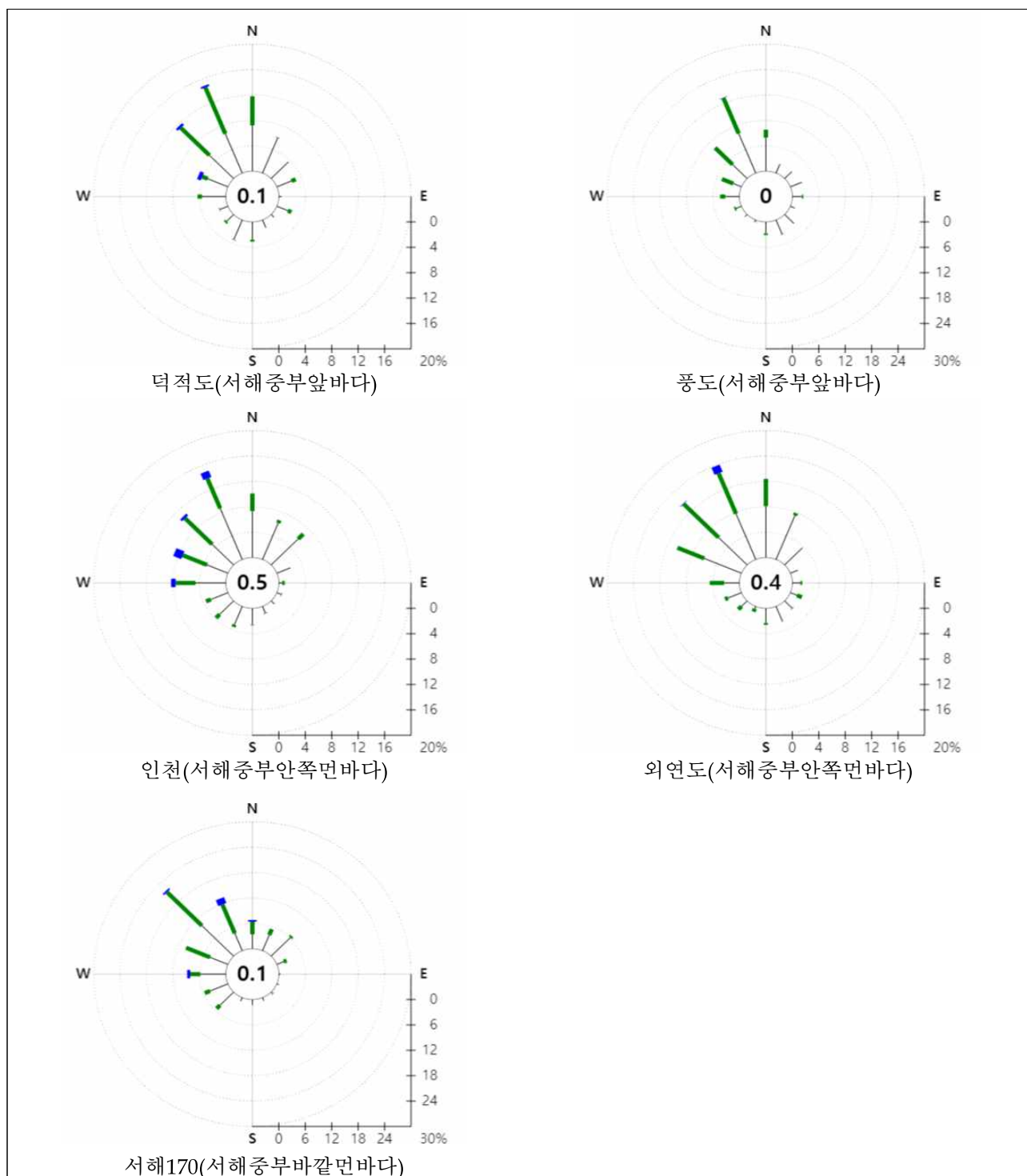
고 등 어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 서해 남부 해역과 제주도 남부 먼바다까지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어황은 전년보다 양호하고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갯 이	제주도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동해 중부 해역에서도 일부 어장이 이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멸 치	거제도와 남해군 앞바다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부산 앞바다에서도 일부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황은 전·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 치	남해 서부를 중심으로 서해 남부 해역과 제주도 남부 먼바다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어황은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하나,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 조 기	남해 서부를 중심으로 서해 남부 해역과 제주도 남부 먼바다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어황은 전·평년 대비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 치	남해 서부를 중심으로 남해 동부 해역과 제주도 남부 먼바다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어황은 전년 수준으로 평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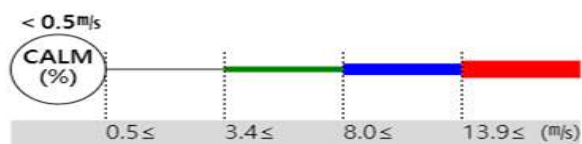
< 2026년 1월 어업별 예상어장도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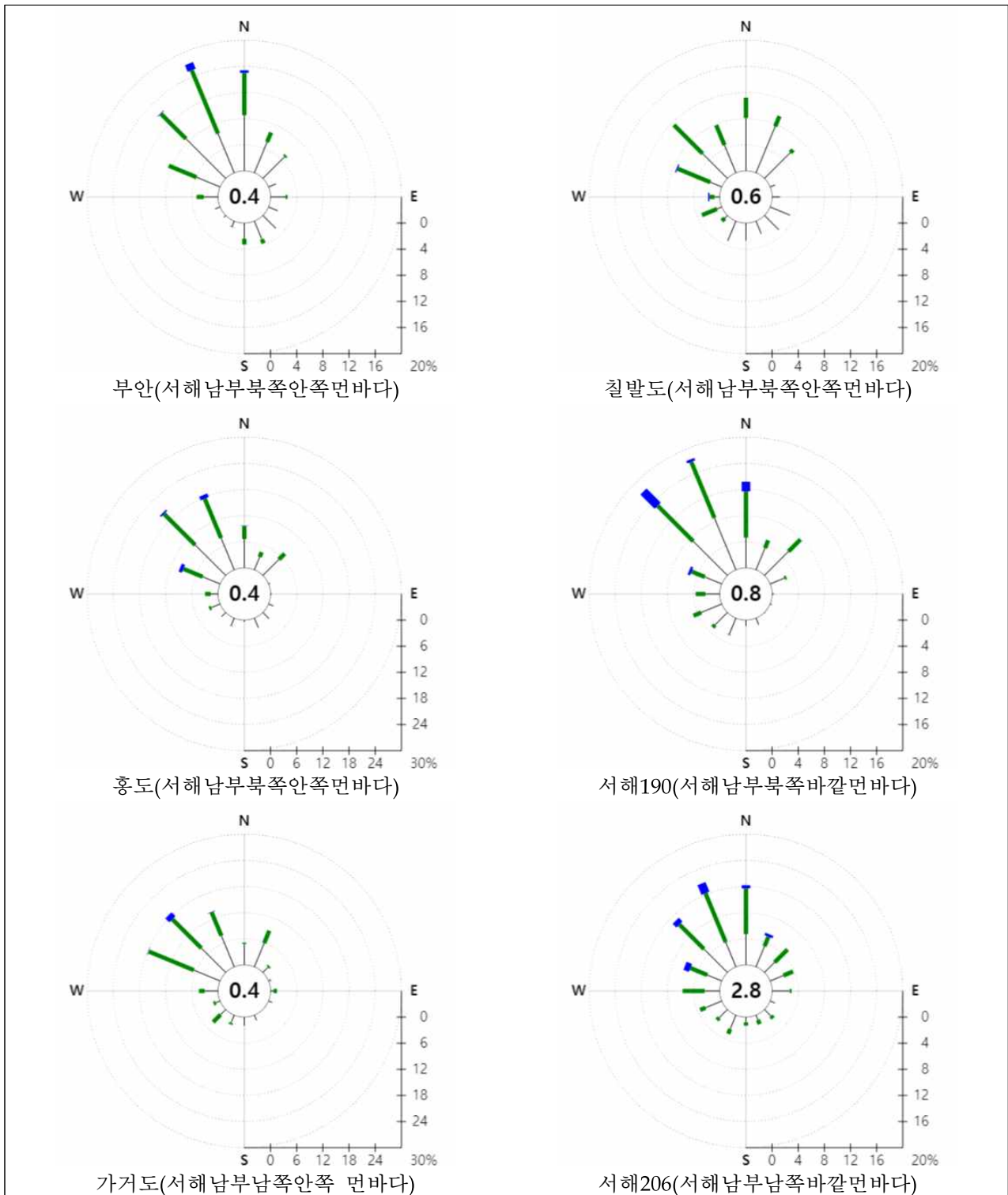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 중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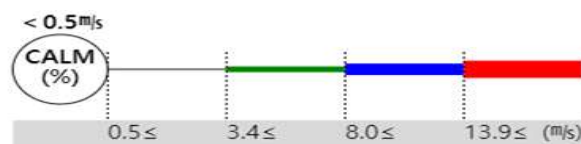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1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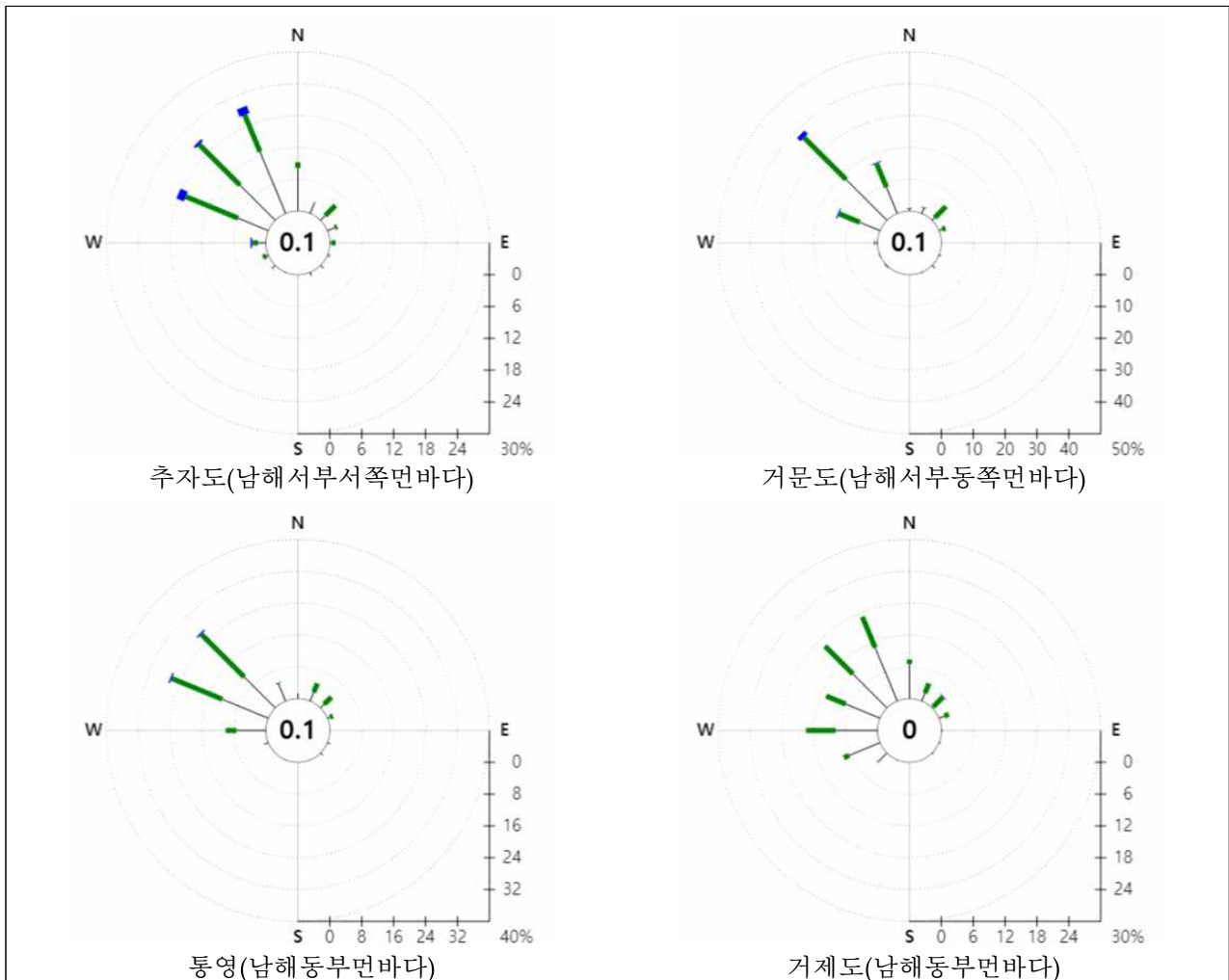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남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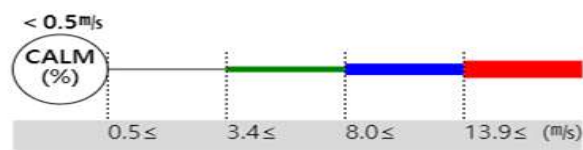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1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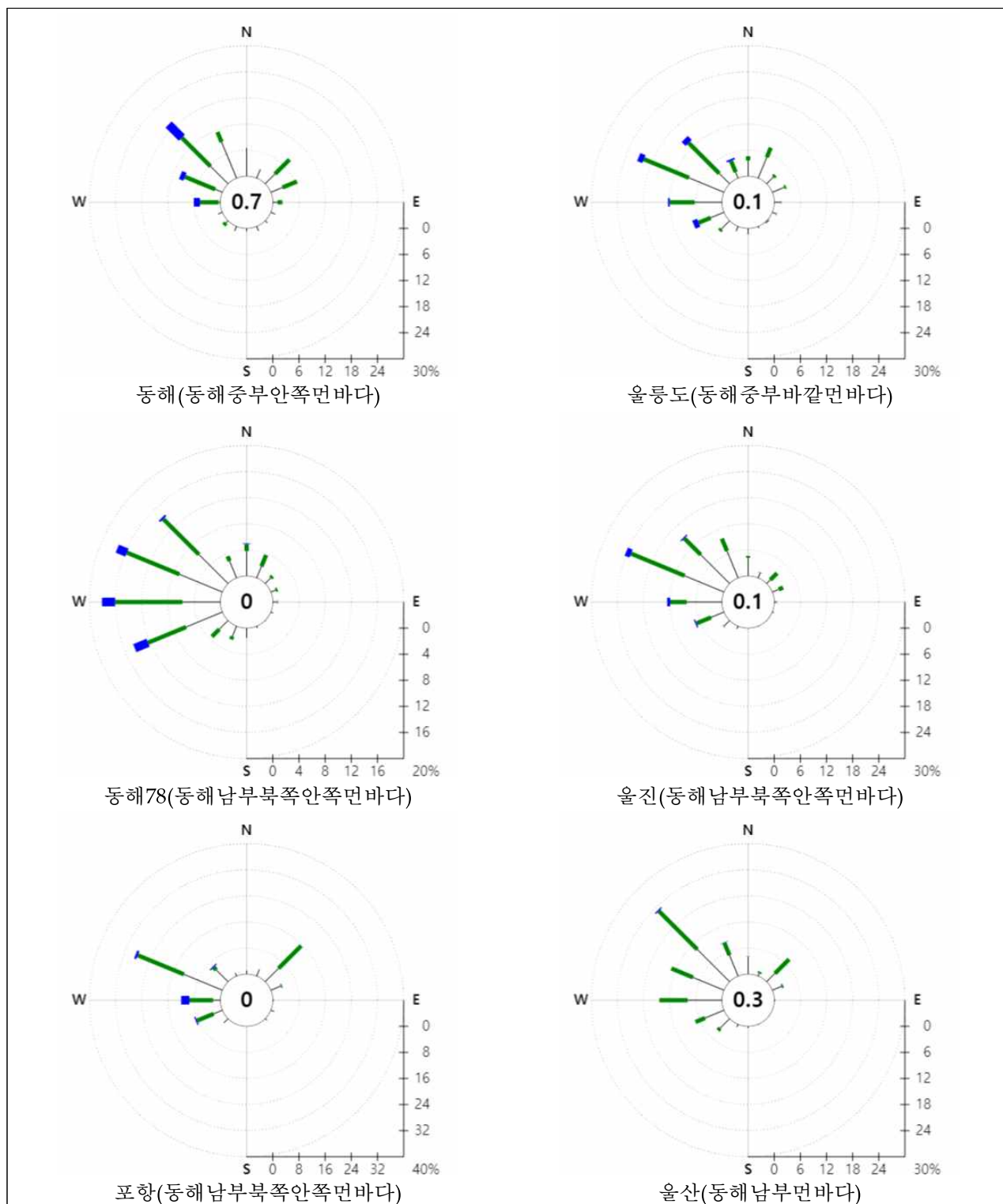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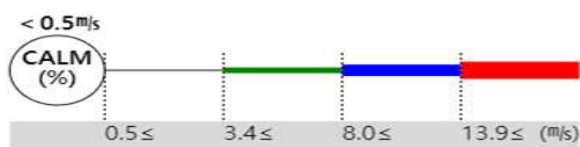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1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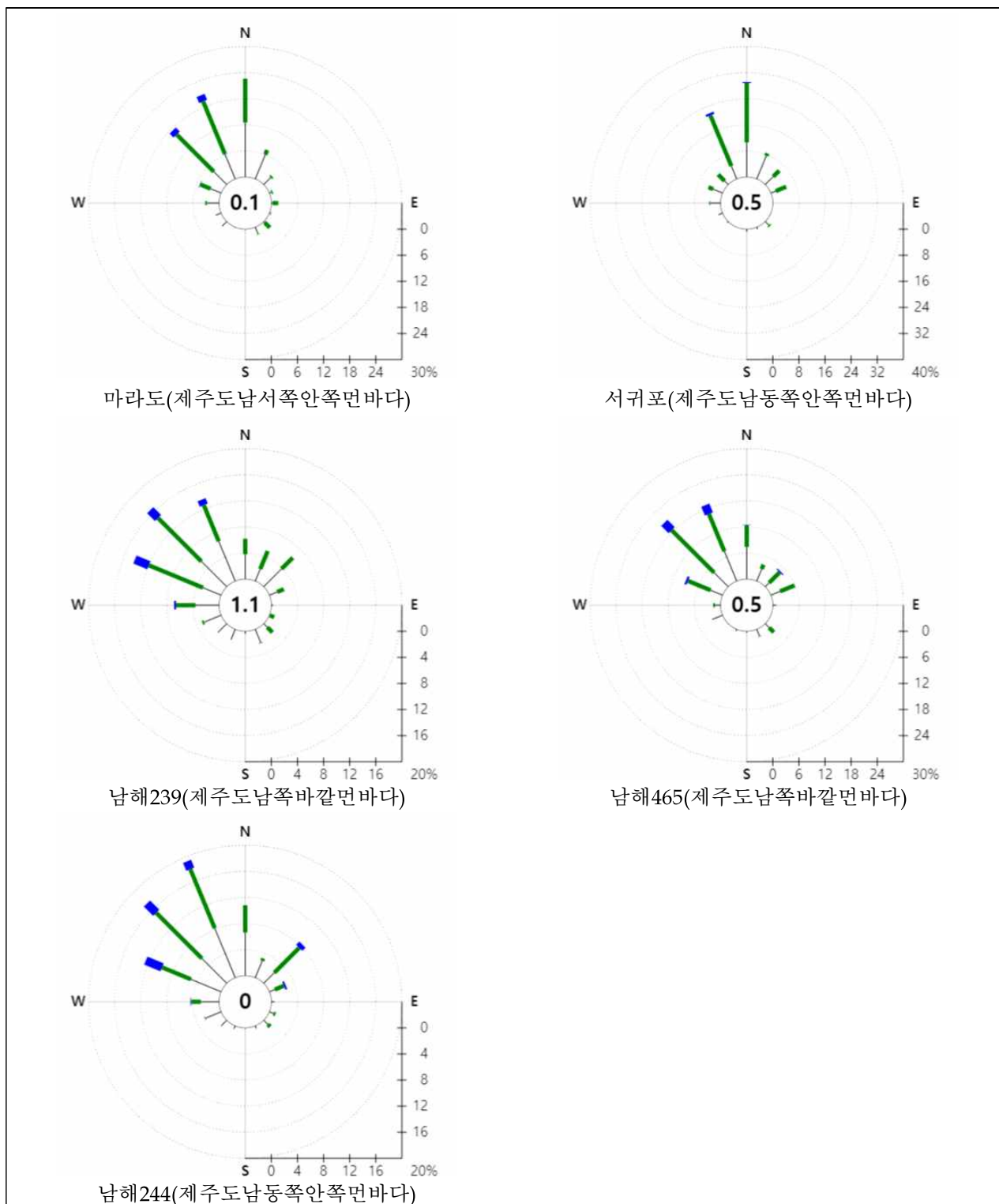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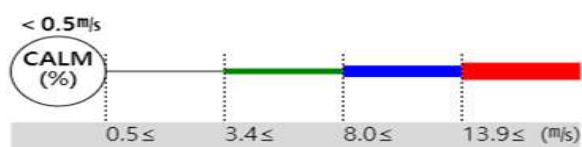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1월, 바람장미) >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제주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1월, 바람장미) >



【부록 2】

주요 해양 안전사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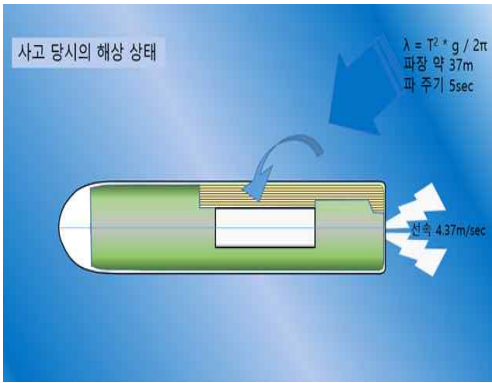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1. 어선 A호 화재사건 안전관리 소홀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24톤, 길이 21.30미터
	일시 장소	2020년 2월 5일 5시 11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여서도등대로부터 272도 방향 8.4해리 해상
	피해	2020년 2월 1일 09:02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제주도 북방 해상에서 조업하였고, 2020년 2월 5일 03:30경 조업을 마치고 완도항으로 항해하던 중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선체 횡요로 인하여 기관실 내부의 연료유탱크 공기관을 통해 넘친 연료유가 주기관 고온부에 떨어져 접촉되며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의 진화 작업 중 침몰
	날씨	북서풍 초속 14~16미터, 파고 1.5~2.0 미터, 흐린날씨
원인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서비스탱크 공기관이 부적절하게 설치된 A호가 기상악화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선체 횡요로 인해 공기관을 통해 넘친 연료유가 주기관 고온부에 떨어져 접촉함으로써 발생한 것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선박소유자는 기관실 내부에 설치된 연료유탱크 또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공기관이 기관실 밖의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선체가 외력의 영향으로 심하게 횡요하는 경우에도 연료유가 공기관을 통해 넘쳐 주기관 고온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형어선 선장은 전기전문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시험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 점검·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어선 선장은 기관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름걸레 및 선저폐수 등과 같은 가연성물질이 좁은 기관구역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기관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어선 A호 전복사건

복원력 상실 및 선박정비 소홀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29톤, 길이 21.59미터
	일시 장소	2019년 2월 13일 05시 35분경 제주도 마라도등대로부터 176도 방향 199해리 해상
	피해	A호는 2019년 2월 10일 09:20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총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서귀포 남방 한·일중간수역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거친 파도를 조우하여 갑판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후 침몰함
	날씨	북동풍 초속 12~16미터, 파고 3~4미터, 시정 2해리, 비가 내리는 날씨 사고 발생위치로부터 남방 240해리 해상에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원인	이 전복사건은 A호가 투승작업을 하며 항해하던 중 파고가 높은 추종 사파를 조우하여 선체가 복원정 소실각도에 가깝게 경사한 상태에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며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 소유자가 방수구 및 기관실 출입문에 대한 정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소유자는 방수구의 막힘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비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 갑판의 폭이 확장된 선박의 선장은 선형이 가지는 복원성 한계에 유의하고, 좌우 경사가 없는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여야 함 ○ 선장은 유의파고 2배 높이의 최대파고를 조우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거친 해상 상태에서는 갑판상 개구부를 폐쇄하여야 함 	
관련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고 당시의 해상 상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p>전복 당시의 A호 운항모습(좌) 및 개방된 기관실 출입구 모습(우)</p>	